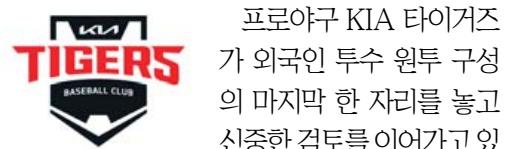


“이만하면...”·“그 정도로는...” 올러 ‘딜레마’

KIA, ‘2선발’에 거는 기대…올러를 둘러싼 고민

**두자릿수 승수·경쟁력 입증…불확실성 해소·팀 적응 완료 긍정평가
선발 소화 능력 전체 18위, 이닝이터 ‘풀옵션’…부상 이력은 약점으로
‘안정’과 ‘확장’ 사이 모호한 경계선…내년 시즌 팀 전력 구상 ‘기습자’**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가 외국인 투수 원투 구성의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구단은 이미 ‘에이스’ 네일과 재계약을 마친 가운데, 남은 한 자리에 대해서 기존 자원과 새 외국인 투수 영입 가능성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옮겨둔 상태에서 고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 2선발’ 올러는 여전히 유력한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구단이 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다.

KBO 리그에서 이미 일정 수준의 성과를 확인했다는 점과 새 외국인 선수에 비해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국내 무대에 입성한 올러는 올 시즌 선발로 26경기에 등판해 11승 7패, 평균자책점 3.62를 기록했다. 149이닝을 소화하며 웰리티 스트트(QS) 16회, WHIP 1.15, 피안타율 0.226을 남겼다.

팀 내에서는 다승 1위이자 유일한 두 자릿수 승수를 기록한 투수였다. 삼진 부문에서도 팀 내 최다를 차지했고, 피홈런은 8개에 불과했다.

특히 구종 경쟁력은 뚜렷한 무기다.

올러는 리그 ‘슬라이브 구종 가치’ 지표에서 네일과 함께 외국인 투수 중 가장 높은 수치(32.2)를 기록했다.

결정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영입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요소로 작용한다.

여기에는 이미 리그와 팀 환경을 경험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다.

시즌 초반 적응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변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은 평가 과정에서 분명한 플러스 요인이다. 이 같은 요소들이 그를 여전히 유연한 선택지로 남겨두는 배경이다.

다만 제약 요인도 존재한다.

그의 선발 소화 이닝은 149이닝으로 리그 전체 투수 가운데 18위에 그쳤다.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승수를 올렸지만, 시즌을 관통하는 이닝 누적과



올러

꾸준함이라는 측면에서는 확실한 이닝 이터로 분류하기에는 거리가 있었다는 평가가 따른다.

경기별 편차 역시 불안 요소다.

여기에 부상 이력 역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더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올러의 가치를 내리기보다는, 장기 레이스를 함께 치를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구단이 판단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외국인 투수 시장 전반을 놓고 보면, 새 자원 영입은 구워나 잠재력 면에서 선택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지만 리그와 환경 적응이라는 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

반대로 기존 외국인 투수는 시즌 초반 시행착오가 적고, 이미 확인된 성적과 성향을 바탕으로 한 인정성이 강점이다. 올러는 이 두 방향성의 경계선에서 있는 카드다.

KIA 구단은 연내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남은 외국인 투수 한 자리를 두고 복수의 가능성을 열어두며 최종 판단을 준비하고 있다.

올러 역시 그 과정 속에서 장점과 한계를 모두 안은 채, 아직 저울 위에 올라 있는 상태다.

결국, 내부 기류는 올러를 놓고 볼 때 기본적인 기준에는 부합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전력 구성 전반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는 쪽에 기깝다.

‘올러의 잔류냐, 새 외국인 투수 영입이냐’는 단순히 한자리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다.

내년 시즌 마운드 ‘원투펀치’ 구축은 물론, 팀 전력 구상의 핵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주홍철 기자



18일 열린 ‘광주시체육회 제13차 이사회’에 참석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등 이사진들이 내년 광주체육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빛고을 체육인 하나돼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 눈부신 성과 빛났다

‘국제스포츠도시 위상 제고·2028 전국체전 유치’

광주시체육회, 올해 마지막 이사회 성료

광주시체육회는 18일 오후 2시 체육회관 중 회의실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과 광주시체육회 부회장 및 이사 등 39명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체육회 제1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 주요안건으로 보고사항은 민선 2기 체육회장 공약사항 이행 결과 등 3건, 의결 사항은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사항 등 8건을 상정해 원안의결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올해 마지막 이사회인 만큼 이사들에게 한해 동안 광주시체육회에서 주최했던 주요성과를 보고했다.

주요성과로는 종목단체 회장선거를 위한 광주시체육회 TF팀 구성 지원, 전국 소년체전 종목별 예선대회 광주시체육회 최초 개최, 호남 대태권도 품새팀 등 대학팀 신규 창단, 각종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확보, 세계 앙상선수권 대회 등 국제 메가 스포츠대회 성공 개최 지원, 2028년 제109회 전국체육대회 광주 유치 성공, 제10회 부산 전국체전 종합 11위 달성 등이다.

또 체육회장 남은 임기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내년 제10회 제주 전국체전에서 한단계 도약하도록 이사들이 힘을 모아줄 것도 당부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임원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2025년 한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 모두 수고 하셨다”며 “광주시체육회는 시민과 선수가 언제 어디서나 체육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탁터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희중 기자

안세영, 왕중왕전도 승승장구 ‘시즌 최고 승률’

미야자키 2대0 완파…4강 안착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이 ‘왕중왕전’ 격인 월드투어 파이널스 조별리그에서 4강 진출을 확정하고 단일 시즌 최고 승률을 기록했다.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18일 중국 항저우의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스 2025 여자 단식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일본의 미야자키 도모카(월드투어 랭킹 9위)를 경기 시작 33분 만에 2-0(21-9, 21-6)으로 완파했다.

시즌 15개 대회에 출전한 안세영은 이제까지 총 60경기를 치러 65승을 거두고 승률 94.2%를 기록했다.

이는 60경기 이상 출전한 여자 단식 선수 중 단일 시즌 역대 최고 승률이다.



BWF 월드투어 파이널스 2025 여자 단식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안세영과 미야자키 도모카가 경기 후 손을 맞잡고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2승을 먼저 챙기며 조 1위로 올라섰다.

2위 야마구치 아카네(일본)와 승수는 같지만, 게임 점수 득실에서 32-19로 앞선다.

월드투어 랭킹 상위 8명이 출전한 이 대회에서는 4명씩 A조와 B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고, 각 조 상위 2명이 4강 토너먼트에 진출해 우승자를 가린다.

승수가 같은 경우에는 축구의 골 득실처럼 전체 경기에서의 ‘세트 득실’과 ‘점수 득실’을 차례로 따져 순위를 가리게 된다.

올 시즌 벌써 10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할 경우 일본 남자 단식 선수 모모타 겐토와 단일 시즌 최다우승 타이기록을 세우게 된다.

안세영은 19일에 열리는 3차전에서 월드투어 랭킹 4위 야마구치를 상대한다.

/연합뉴스

행복 나눔으로 아름다운 동행

KIA, 임동 행정복지센터 찾아 ‘이웃 사랑 나누기’ 행사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눴다.

KIA는 18일 오전 광주 북구 임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 사랑 나누기’ 행사에 참여하며 지역 사회와의 동행을 실천했다. 투수 김도현은 이날 기부금 500만원을 직접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뜻을 전했다.



(시진) 지난해까지 매해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이어왔던 KIA는 혜택을 받는 소외 계층이 조금 더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온누리 상품권’ 형태로 기부금을 전달했다.

KIA 김도현은 “선수단을 대표해 야구장 인근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이

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꾸준히 사랑을 전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주홍철 기자

북중미 월드컵 총상금 9천680억원…역대 최대 ‘돈잔치’

‘출전만 해도 155억 원·우승하면 739억 원’

출전국이 32개에서 48개로 대폭 늘어난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역대 최대 돈잔치가 벌어진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17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평의회를 열고 2026 월드컵 개최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794천700만달러(약 1조 745억원)의 재정 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48개 참가국에 지급할 총 6억5천500만달러(9천680억원)의 상금이다.

이는 종전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2 카타르 월드컵보다 50% 늘어난 금액이다. 카타르 대회 총상금은 2018년 러시아 대회보다 10% 늘어난 4억4천만달러였다.

멕시코, 미국, 캐나다가 공동 개최하는 2026 월드컵 우승국은 ‘월드챔피언’이라는 명예와 함께 5천만달러(739억원)의 상금도 손에 쥐는다.

뒤를 이어 준우승 3천300만달러, 3위 2천900만달러, 4위 2천500만달러, 8강 진출국 1,900만원, 16강 진출국 1,500만원, 조별리그 32강 진출국 1,100만원, 본선 출전(3경기) 900만원, 모든 참가국(대회 준비 비용) 150만원 등이다.

나라에는 1천100만달러가 각각 돌아가고 조별리그 3경기만 치르고 탈락한 국가도 900만달러를 받는다.

여기에 대회 참가 준비 비용으로 모든 참가국이 150만달러를 지원받는다.

북중미 월드컵 본선 출전만으로 최소 1천50만달러(155억원)를 받는 셈이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이 원정 월드컵 사상 최고 성적인 8강 목표를 달성하면 상금 1천300만달러에 대회 준비 비용 150만달러를 합쳐 2천50만달러(304억원)의 기와 수입을 올리게 된다.

/연합뉴스

